

# 대청호에서 펼쳐지는 1억송이 국화의 대향연

오는 10월 20일부터 20일간  
대청호자연생태관 일원에서  
2009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개최

‘가을 국화향기에 빠지다...’

올 가을 대청호 일대에 국화 꽃물결의 장관이 펼쳐진다.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대청호자연생태관 일원에서 '2009 대청호 국화향나라전'을 개최한다.

구는 작년 가을 책사랑음악대축전과 연계해 열린 천만송이 국화향나라전이 청명한 가을하늘과 호수, 국화꽃으로 이어지는 가을이미지를 통해 동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 올해는 명실상부 중부권 유일의 명품 국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1억송이 국화 대제전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이에 무려 작년의 10배에 달하는 50만본의 국화를 식재하고 국화 관련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상설공연을 마련하는 등 지난 행사보다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된 내실있는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을하늘을 닮은 호반과 1억송이 국화가 만나는 대향연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을 비롯한 추동일대 100,000㎡에 걸쳐 펼쳐진다.

행사장 일원의 산과 들에는 폰국, 오색국화, 구절초, 현애 등 수많은 국화가 꽃물결을 이뤄 관람객들을 환상적인 꽃의 세계로 이끈다.

우선 생태관에 꾸며지는 국화기획전시장에는 분재, 대국, 다륜대작 등 200여점의 기획물 전시와 함께 국화 동호회 및 전국 국화 콘테스트 작품 500여점, 야외 테마정원이 선보여 국화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콘테스트 작품 응모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는 등 축제 시작 전부터 명품 국화축제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 생태습지 주변 국화 테마파크에는 풍차, 나비, 토끼어리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을 전시하고 나비정원, 여인의 정원, 바람의 정원 등 국화테마거리를 연출해 형형색색 꽃들의 대향연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밖에 오색국화밭, 이색 조형미술 작품전이 펼쳐지는 오색국화동산과 각종 식용, 약용, 향신료작물 재배단지과 야생화단지 등의 농경문화 체험공간인 국화생태공원도 조성된다. 아울러 주요 행사장 간 연결로 및 등산로는 시인의 오솔길 등의 이색 이벤트 거리로 꾸밀 계획이다.

행사기간 중 주말에는 다채로운 특별공연도 마련된다. 국화향 콘서트, 플라워 마술쇼, 퓨전 국악공연, 해외자매도시 초청공연 등을 통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축제 연출로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와 함께 플라워 뮤지컬댄스, 꽃마임거리 퍼포먼스 등 상설행사와 국화꽃 방향제 만들기, 플라워 자기 만들기, 식용국화 시식, 열기구 탑승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다.

또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대청호 국화 사진 촬영대회 등도 열려 가을날 자연 속에서 함께 하는 축제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대청호 국화향나라전을 대전역 영시축제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수익창출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도 열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청호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상품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국화상품 및 지역특산품 판매에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해 지역특화 축제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7월 동구 축제 운영조례를 제정, 무료로 진행됐던 작년 축제와는 달리 일반 5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의 입장권을 판매, 운영키로 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축제재원 확보는 물론 가치 제고, 경쟁력과 생산성있는 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구는 적극적인 축제홍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입장권 예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매요금은 일반 4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으로 현장요금보다 저렴하며, 국가(독립)유공자 및 자녀,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